



## 건강검진과 사회공익사업에 앞장서는 한국건강관리협회

### 2008년 국방부 건강골 만들기 행사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이순형)는 국방부 건강주간을 맞이하여 2008년 2월 18일 (월)부터 22일(금)까지 국방부 본관 대강당에서 2008년 국방부 건강골 만들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 기간 중에는 스트레스 및 동맥경화 측정과 시 기능 검사를 실시했으며 건강 관련 상담 및 건강정보자료 제공과 함께 금연 관련 패널 전시 등도 진행되었다. 국방부 직원 및 내방 군 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도 국방부 건강골 만들기 행사는 웰빙 열풍이 불고 있는 사회 분위기에 발맞춰 간단한 건강검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유도해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계기를 형성했다는 평가다.

한편 건협은 15개 군병원 및 국방부 지정부대의 금연클리닉 담당자를 대상으로 군 금연클리닉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 내 금연실천 및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협회 각 시도 지부를 통해서 자체적인 운영이 어려운 80여개 군부대를 대상으로 방문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대상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 행사명 2008년 국방부 건강골 만들기
- 일 시 2008년 2월 18(월)~22일(금) 08:00~13:00
- 장 소 국방부 본관
- 검사 및 측정 시 기능 검사 / 스트레스 측정 / 동맥경화 측정
- 검사 실시인원 1,000여명(5일 합계)
- 부대행사 건강정보 제공 및 금연 관련 패널 전시



###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에 매진

건협은 국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건강검진사업과 사회공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민검진을 필두로 국가암검진, 건강보험검진, 생애전환기검진, 일반집단검진, 영유아검진 및 학생건강검사 및 기생충검사를 연중 실시하는 한편 국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무료건강검진 사업도 활발히 수행 중이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도시설 재소자, 노숙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장애인, 아동, 노인), 오지 및 벽지 주민 등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건강검진(연 11만 명)을 연중 실행하고 있다. 더불어 15개 보건약단체로 구성된 사회공헌협의회를 통한 연대활동과 기부별 또는 협회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익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남북이산가족방문단,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원폭피해자, 국가원호대상자 및 가족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건강검진(연 3천명)을 관련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사, 국가보훈처 등)와 협의회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건협은 건강검진과 관련된 다채로운 일반 행사 및 월별 행사(보건의 달, 호국보훈의 달, 경로의 달 등) 실시로 국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에 매진하고 있다. 🌈

